

'제37회 전북연극제' 4월 개최

4월 8~1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서
극단 까치동·하늘·등지 참여... 70명 사전 예약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제37회 전북연극제'를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극제에는 극단 까치동과 극단 하늘, 극단 등지가 참여한다. 먼저 오는 8일 극단 까치동은 동화농민혁명과 전주, 집값소를 소재로 한 창작극 '들꽃상여'를 선보인다. 이어 9~10일 극단 하늘의 창작극 '돈나무가타, 여행'과 극단 등지의 '집승:불이'가 각각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심사는 정두영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과 오지운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이사, 김영주 전주시립극단 배우가 맡는다.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1개 팀에게는 전북도지사상과 함께 오는 7~8월 경북 예천, 안동 일대에서 열리는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연극은 무료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한 70명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조민철 회장은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상황이나 시대가 다르지만, 난관에 부딪혀 밀바닥까지 내던져진 구차하기까지 한 삶이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해결점에 이르는 결론으로 귀결돼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연극제 지원에도 꾸준히 뚜렷한 성과를 낸 전북 연극인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발휘되기를 염치없이 빌어볼 뿐"이라며 "봄은 왔지만, 잔뜩 움츠러든 연극에 여전히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관객들에게도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제37회 전북연극제'가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뉴스시

'찾아가는미술관-익산, 안녕壽신가요展'

예술의전당, 전북도립미술관과 함께하는 기획 전시

익산 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찾아가는미술관-익산, 안녕壽신가요展'을 개최한다. 예술의전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 예약제로 시간당 관람 인원이 제한되며 5인 이상 예약은 불가하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1시간 당 최대 관람 인원 30명 이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안녕壽신가요展'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광영의 매화도 10폭병을 포함한 32점의 작품이 전시돼 현대적인 감각의 한국화 작품들, 한국화에 담긴 의미와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적인 민화화 풍속화, 문인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수화, 매화도, 포도도, 화조도, 영모도, 기명절지도 등 다양한 주제부터 전통적인 소재에 착안한 현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등 다른 장르의 미술까지 고전미와 모던함이 어우러지도록 구성됐다. 이밖에도 전시회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과 손소독 후 입장, 매일 2회 이상 미술관 소독 등 안전한 전시 관람이 되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속에 담긴 부귀, 행복, 다산, 장수 등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과 바람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려 한다"며 "현대의 작품들을 통해 추억과 향수, 극복, 안식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선우

김나현

정새하



김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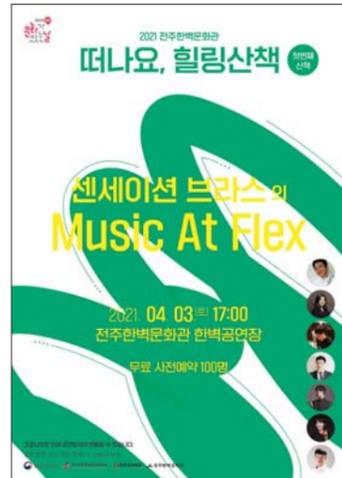
이창준

김다울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떠나요 힐링산책'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서 4월 3일 센세이션 브라스의 Music At Flex 무대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활기와 생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선보인다. 전주한벽문화관의 '떠나요 힐링산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코카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총 6번의 힐링산책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산책의 동반자는 금관 앙상블 단체 '센세이션 브라스'이며 'Music At Flex'라는 타이틀로 오는 4월 3일, 오후 5시에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센세이션 브라스'는 전라북도의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젊은 전문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2013년 창단한 공연예술단체이다. 클래식할 단체명이지만, 클래식에 안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통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토크버스킹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음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열정 가득한 단체이다. 이번에 준비한 'Music At Flex'는 장소 불



전주한벽문화관의 '떠나요 힐링산책' 첫 번째 산책의 동반자는 금관 앙상블 단체 '센세이션 브라스'이며 'Music At Flex'라는 타이틀로 오는 4월 3일, 오후 5시에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문하고 음악을 즐기자는 의미로써 성악곡, /양은경 기자

스윙재즈, 금관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태수 작곡가의 '아름다운 나라'를 시작으로, 독일의 트럼본 연주자 엔리크 크레스포(Enrique Crespo)의 금관 앙상블 '발라드 포 투 윙스(Balade For Two wings)',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곡으로 널리 알려진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의 '지금 이 순간' 등 여러 명곡을 '센세이션 브라스'만의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콘텐츠사업팀 황해지 주임은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저희가 준비한 '떠나요, 힐링산책'을 통해 그간 무거웠던 발걸음을 좀 더 가벼이 내디디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공연장으로 외출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모든 공연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현재 '착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객석을 100석 한정 오픈한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당일 현장 입장은 불가하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은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4월 소리판 꿈나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판소리마당 '소리 판' 4월 공연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중·고생들이 펼치는 꿈나무 판소리 공연을 예음헌에서 펼친다. 4월 3일은 남원국고 김선우(2학년)의 춘향가와 국립국악중 김나현(2학년)의 흥보가가 펼쳐지고, 10일에는 정국립전통예술고 정새하(2학

년)의 적벽가, 김명서(1학년)의 흥보가, 17일에는 국립전통예술고 이창준(1학년)의 심청가, 국립전통예술중 김다울(3학년)의 흥보가를 만날 수 있다. 공연 관람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선착순 사전예약(50석)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